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 담벼락에 묻힌 5월 광주』

문선희 엮음, 난다, 2016

정윤화*

기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원질서와 출처 중심의 객관성을 가진 증거로서 기록을 말했다면 이제는 일기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생산되는 기록들, 그들이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는 기억의 기록을 말하고 있다.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담벼락에 묻힌 5월 광주』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던 4-50대 성인들을 2년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가감없이 엮어 보여주고 있는 책으로, 오늘날 기록의 패러다임 변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데 왜 본 책은 당시 초등학교생인 아이의 눈으로 바라 본 ‘5.18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을까? 아마도 이는 아이들의 시선을 통한다면 변형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책장을 넘길수록, 80명의 어른인 아이의 이야기를 읽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처음 책을 받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제목,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물었지만, 상대방의 아픈 추억이라고 생각하였거나, 정치적인 이유에서거나 입 밖으로 차마 꺼내지 못하여 물어보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석사과정.

지 못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책장을 넘겼다. 책을 모두 읽은 후에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는 5.18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아픈 역사를 땅 속에 묻듯이 묻어버리려 하였으나 그들의 기억 속에 이것이 여러 이야기들로 남아 묻을 수 없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목차가 두 쪽 내외인 다른 책과 달리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구성된 긴 목차를 지나 서문이 나왔다. “이 작업은 기록이 아닌, 기억에 관한 것이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친구들에게 기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친구들이 떠올리는 기억이라는 것은 모두 달랐다. 이렇듯 기억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성격이 있다. 행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기억 하나만으로는 객관적이지도, 공평하지도 못하다. 마치 범죄수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기억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기억은 특정한 관점을 구조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을 넘기면 녹이 슨 철문을 찍은 듯한 사진이 나온다.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보았다. 첫 번째가 바로 당시 아이들이 살았던 동네를 찍은 사진을 책의 사이사이에 넣어 둔 것이다. 글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날의 참상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5.18이라는 한 역사에 대한 무게를 글과 함께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책에서는 글과 사진을 한 페이지에 담지 않고 사진으로 먼저 그 시대의 참상을 어렵듯하게 독자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한 후 그 감정을 가진 채로 다음의 이야기들을 읽음으로서 아이들의 5.18을 바라보는 순수함과 사진에 어렵듯하게 담긴 그 날의 아픔이 독자의 머릿속에 공존하게 되고 그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단순히 사진만을 넣은 것이 아니라 ‘씻!’, ‘오메오메’, ‘6.25보다 더’와 같이 사진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관시켜 그 날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줌으로써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이 책이 가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소리로 나타내는 5.18이다. 어른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 아이들은 이 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고, 그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총소리, 여성의 목소리, ‘전두환은 물러나라’와 같은 함성소리, 당시 어른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등으로 그 날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다. 시민군의 격렬한 저항이 시작되었다.’라거나 ‘계엄군이 광주를 점령하고 총을 쏘아댔다’와 같이 실제 펼쳐지고 있던 현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그 때 주로 들리던 소리들로 시대의 분위기를 독자들은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고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나아가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알려주기 보다는 당시 들렸던 소리나 주변의 상황만을 전달하는 것이 독자로 하여금 그 역사에 대해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이 책에 가장 인상깊었던 세 번째 특징은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본 5.18이다. 학교를 가지아도 되는 상황을 단순히 좋아하는 모습이나 화염병을 보고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는 표현, 착한 군인아저씨들의 모습이 아닌 것에 당황한 아이의 모습과 심지어 당시 상황을 재밌는 구경거리를 보듯 했던 아이의 모습 등 당시 긴박하고 무거웠을 상황과 대비되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독자들은 무엇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았고,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함에 어울리지 않는 그 시대의 상황이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느껴지도록 한다. 반대로 당시 학교를 가지 않아 단순히 좋아했을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어렸을 당시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해보기도 하고, 빵을 얻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암울해진 감정에 잠깐의 휴식을 주기도 한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기억은 그 시대를 겪지 못한 다른 세대에게는 그 역사를 다양한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 시대의 사람에게서 공감을 느끼며 그 역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구술로 구성된 이 책의 매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역사를 누군가에게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으로 혹은 하나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모양으로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그 시대를 회상하며 단순하면서도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다. 마치 어릴 적 궁금했던 옛날이야기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때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기분이 들었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지구상에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혹은 연령대가 어떤지, 성별은 무엇인지에 따라 하나의 과거에 해석을 거쳐 여러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상황은 하나이지만 그에 대해서는 여러 기억이 생겨나는 것이다. 언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라는 누군가 적은 글귀를 본 적이 있다. 21세기, 우리는 혼돈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시기가 지나갈 때쯤 우리도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 ‘기억’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를 그때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존재들이 될 것이란 걸 새삼 생각해보게 되었다.